

# 다시 시작하는 참된 개혁

시편 27:1-6, 로마서 1:16-17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1517년 10월 31일 아침에, 신학교 교수이면서 신부였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때로부터 500년이 되는 것이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했다. 공부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논제를 붙인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느냐 해서 붙인 것이다. 예전에 우리 참사랑교회 주보에 95개조 논제를 하나씩 실었다. 발췌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로마 교회가 볼 때는 이것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일로 보였다. 그래서 저자를 잡아 죽여라 하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때 개혁자들은, 우리 교회가 신학이 없다고 느꼈다.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종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신학이 없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1000년부터 1500년까지 교회가 주로 했던 설교가 성만찬에 대한 것이었는데, 게다가 그것을 화제설로 주장했다. 사제가 기도할 때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직접 변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는 1967년까지 예배에 설교가 없었다. 당시 천주교 신부들은 돈을 주고 신부의 지위를 사고 그랬기 때문에 설교를 못 했다. 나도 군대에서 천주교 신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설교를 못 했다. 말씀을 모르니까. 게다가 1967년까지는 모국어로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 못했다. 다 라틴어로 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다.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읽지도 못했다. 1967년에서야 비로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황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력을 움직이는 정도에 이르렀고, 마침내 돈이 궁하니면 면죄부까지 팔기 시작했다.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마리아는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주장까지 꾸며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한 것이다. 지금도 마리아를 섬기지 않나. 왜 마리아를 섬기느냐 하면, '아,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낳은 분이니까 존경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한다. 어머니가 부탁하면 예수님도 못 이기는 척 하고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당 가서 마리아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성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기도한다. 이런 것은 성경과 다르지 않느냐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다. 개혁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의미없는 날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쁜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개혁의 본질을 놓친 이야기를 한다. 개혁이 무슨 말인가? 많은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그것이 아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개혁을 reform이라고 한다. re는 다시 한다는 말이다. 돌아간다는 말이다. form은 틀을 말한다. 모습을 말한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폼을 옛날 것, 처음의 것으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회는 원래 모습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의 정신, 그때의 품, 그때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생명 걸고 선포했던 초대교회의 응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참된 개혁이 우리 참사랑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

## 1. 종교개혁의 역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역사의 흐름을 찾아보면, 시대마다 전도가 사라지고, 교권이 강해지면서, 복음이 희미해졌는데, 중세 교회에도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다. 유대 역사를 봐도, 요아사, 히스기야,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나. 그런데도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세 교회도 잘못된 곳으로 또 빠져 버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 개혁해야 한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사가를 이야기하고, 더 지나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갈수록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 눈물의 종교가 되어 갔다.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천주교는 온갖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이 상실된 것이다. 어느 정도 복음이 상실되었는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하고,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자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연옥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행위를 빠르게 해야 구원받는다 주장했다. 마침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론까지 만들어서 그런 것을 계속 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니까 시대는 점점 어려운 재앙 속에 있게 되었다. 그때 신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하네스 테켈이라는 사람이었다. 설교를 잘 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있었다.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선전원 비슷하게 설교를 하고 다녔다.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할 수 없었다. 집도 팔고 밭도 내면서 헌금을 하게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마음이 파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자원해서 예를 드려야지, 강제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성경 시대에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천주교가 잡고 있었던 중세 천 년이 그와

같이 암흑시대가 되어 버렸다. 사실상 천주교는 우상 종교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 불교하고 비슷하다. 그 시대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을 보면 불교하고 비슷하다.

(2) 이렇게 되니까 흑암 종교가 일어나는 것을 못 막게 되었다. 이슬람교가 일어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장악했다.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절반이 죽고, 심한 곳에서는 3분의 2가 죽었다. 이런 재앙시대가 천 년이나 계속되었던 것이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시대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셨다. 성경에서 일곱 램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중세 때에도 남은 자를 또다시 일으키셨다는 말이다. 언제든 교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이 복음을 붙잡고 일어난 소수를 핍박하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해서 재앙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역사를 하셨다. 이게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사람이 신부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계속 갈등 속에 있었다.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다.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강의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르니까 평강히 갈등을 했던 것이다. 로마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102개 되는 돌로 만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는데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다.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믿음이 안 오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와서,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복음을 발견하고 붙잡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사실 루터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네 가지를 외쳤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칼뱅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처럼 원색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해 보라. 우리 집 사님이 램프와 함께 학교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갔다. 거기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 학교에서 제일 믿음 좋은 학생이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서 집사님께 붙여 주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 학생에게, '네가 메시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학생은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더니,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더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게 현장에 가 봐야 확신이 된다. 성경의 진짜 주제는 하나도 모른다. 구약의 주제가 메시아다. 구약 39권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 27권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것을 계속 하는 것이다. 심지어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문화사의 산물로 보고 해석한다. 그런 신(新)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로마 교회는 루터를 향해서 '네 주장이 무엇이나, 같이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지 않았다. 발각 뒤집어서, 당장 이단으로 경고하고 정죄한 것이다. 그런데 루터가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를 종교재판으로 불렀는데, 루터가 여기에서 당당하게 황제와 귀족과 로마 추기경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서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록한 글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한 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교회가 이 복음운동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가서 공부를 해 보고, 들어보고, 체험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아, 우리가 복음의 근본을 놓쳤구나. 다른 말을 계속 했구나.'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갔는데 드는 느낌이, '이제 뭘 설교해야 하지' 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내 설교의 주제가, 늘 사회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지 않나. 나는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평강히 회개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난 것이다. '이게 옳은 방법이다. 전도해야 한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단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맞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니까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하더라. 사도행전 5:42에는 분명히,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이단이다, 죽인다 살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장로님들에게, '아이고, 이제 안 되겠습니까, 없던 걸로 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게 교회가 반드시 외쳐야 할 복음이다, 나는 이 말만 하다가 죽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합숙 받을 때 했었는데,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에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회에 세 번 사표를 냈다. 97년, 98년, 99년까지 사표를 계속 냈다. 그러나 당회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셔도 우리가 나가야지, 왜 목사님이 나가신다고 하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나가셔도 교회를 따로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다. 팬클럽 장로님 여섯 분이 나가시고, 교인이 200명, 300명이 나갔다. 나는 내가 직접 나가겠다고 했다. 나가서 길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회에서 교회 두고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싸움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루터가 이 말을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한 마디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안전 보장 기한이 딱 이를 남았다. 그때 교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다가 목을 잘랐다. 안 후스는 화형시켰는데, 화형시켰던 그 뺑자루마저도 땅이 더러워진다고 바다에 버려 버렸다. 그렇게까지 핍박했다. 그러나 후대의 역

사자들은 후스의 뱀가루는 5대양을 타고 6대주로 번져갔다고 증언했다. 복음은 못 막는 것이다. 핏박하면 할수록 폭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루터의 때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많은 제후, 지도자, 교우들 가운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루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성의 성주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암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루터에게 물레 전달을 하고, 루터가 타고 가는 호송마차를 숲속에서 습격할 것이다. 그래서 피난들이 루터를 납치한 것이다. 루터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살리는 팀인지, 자기를 죽이는 팀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던 바르트부르크 성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병사들을 보내어 루터를 보호했다. 여기에서 10개월 만에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다. 내가 그 방을 가 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머리가 열어나 루터를 괴롭히던지, 잉크병을 들어서 던지고 그랬다고 한다. 그때 루터가 쓰던 책상, 길상은 누가 다 훑쳐갔다고 한다. 잉크병을 집어던졌던 그 벽도 다 뜯어갔다고 한다. (웃음) 그래도 자국이 있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교황과 전 천주교가 루터를 죽이려고 발악했는데, 하나님은 루터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 여기에 생병 건 제자들, 동역자들, 중직자들이 따라붙은 것이다. 프리드리히라는 성주, 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 같은 사람이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재앙으로 가는 영적 흐름이 뒤집어지는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서양사에 크게 기록될 만큼 나타난 것이다.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루터가 지어서 부른 찬송이 우리가 밤급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나. 루터도 사람인지라 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루터 부인이 방에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고 온 것이다. 누가 돌아가셨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했더니, 부인이 말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왜 이불을 뒤집어쓰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느냐." 그때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일어났다. "보름스의 기왓장 숫자만큼 많은 머리가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리라."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서 황제 앞에 섰다는 것이다.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이 되셔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칼뱅과 같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많은 생병 건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이 개혁자들은 대체로 네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째는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둘째는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은 좀 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었던 한 중회 목사님 같은 분은, 혼란에 다녀와서 고백했다. '가 보니 어땠느냐' 했더니,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더라. 아까도 장로님들과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남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핏박이 온다. 목이 날아간다. 자리가 날아간다. 충성을 해도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목숨을 건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그 개혁자들을 두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2. 이 시대의 개혁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개혁자라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이다.

(1) 우리는 오직 복음을 회복한 개혁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개신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칼뱅이 회복한 원색적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장로교 공동체로 여기까지 왔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오순절 날 마디라역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흐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 3절, 8절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다. 우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계 곳곳의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절대로 복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담에게서 아벨에게로, 아벨이 죽으니까 셋에게로, 거기에서 에녹에게로, 노아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 실낱같이 이어졌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에서는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고 진리는 사수될 수 있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동기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있어서 내가 직접 차로 모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 최 목사님 내가 달리 보게 되네."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하자는 것이다.

(2) 지금 현장과 세계의 흐름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윤리적으로뿐만이 아니다. 진짜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게 무너지니까 다른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교도소에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한다. 놀랍지 않나.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들도 가서 보면, 돈을 너무 좋아한다. 나도 돈을 좋아하지만, (웃음) 그런 것 말고 아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 말이다. 복음보다 자리에 관심이 더 많고, 복음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고, 복음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것이다. 다른 주장, 다른 이념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어도 괜찮다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들이 판을 친다. 천주교와 화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천주교와 예배 직제와 제도도 통일해야 한다고 한다. 복음적으로 통일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르게 되어 버리지 않나. 주님이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과,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 교단은 250개를 넘게 되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때문에 나뉘진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나뉘었다고 핑계를 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지만 혼합주의는 아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 그런데 종교개혁한 지 500년 만에 세계는 변질의 흐름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것이다.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하느냐, 남자와 남자도 결혼해도 된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혹시 여기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것은 속는 것이다. 사기꾼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3)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개혁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날마다 세 가치를 개혁해야 한다.

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지구를 무너뜨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유일한 답이다. 유일한 능력이다. 그것을 붙잡아라. 교회 왔으면 그것 외에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어린이를 돌보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집도 지어주고 구제도 해야 한다. 그것을 통로로 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② 나와 현장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상 목 자르다든 감옥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이다. 돼지 머리가 절대 우리를 복 주지 못한다. 돌맹이가 우리를 복 주지 못한다. 그림 앞에 아무리 절해도 나를 살리지 못한다. 복음 아닌 것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 어떤 것도 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주역들이 되라.

③ 세 번째로 종교개혁은 문화를 개혁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 아닌 문화가 천 년 동안 교회를 강악하게 되니까, 온갖 우상 종교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 복음으로 바꿔 버려야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 버리면 안 된다. 복음화하려는 것이, 세상문화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와 개혁자들은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복음문화, 성령의 문화를 회복한 것이다. 성령충만을 받아라. 악령충만한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교회와 후대의 모든 문화를 복음문화로 새롭게 개혁하는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네가 개혁하라. 내 신앙을 개혁하라. 네가 개혁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돈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벌라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에이즈 극복을 위해서 3조 원을 내놓았다고 한다. 모기 퇴치를 위해서 5조 원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은 돈을 벌어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우리 재벌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벌면 어디서 훔쳤나 하는 이야기부터 나온다. 그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오직 복음에 결론이 나면 승리하게 된다. 오직 복음으로 결단 내린 언약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시대의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다. 모세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400년의 흑암을 무너뜨렸다. 구약이 전부 그 이야기다. 루터 한 명이 천 년의 흑암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게 종교개혁이다. 힘이 없다? 아니다. 우리가 복음에 딱 서 버리면, 그 외의 것은 양보하면 된다. 오늘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복음 회복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감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번 주간도 이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하라.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 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하면 된다. 3주 정도 새벽기도를 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끝나고 백도공원을 열 바퀴 도니까 7400보가 되더라. 교우 여러분, 다시 새벽을 깨우자. 다시 말씀을 붙잡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야 망해가는 한국과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후대에게 보여주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교우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개혁하고, 또 나를 개혁하고, 내 생각과 삶을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개혁해가는 한 주간, 남은 생애를 살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개혁시켜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했던 루터의 외침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